

국어교육에서 고쳐 바로잡아야 할 말과 글*

최 규 일**

— 목 차 —

1. 서론
2. 언어와 생각 / 思考
3. 언어의 오용 (誤用)
4. 역사 인식이 결여된 용어와 국어 교육
5. 일본식 한자말의 무분별한 사용
6. 어휘 의미면에서 본 공기관계의 오용
7. 결론

1. 서 론

사람의 언어(말과 글)는 不完全하다. 그리고 사람은 神이 아닌 이상 완전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언어에도 잘못된 것과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어 교육은 사람의 잘못된 말과 글을 고쳐서 바로잡는 데

* 이 논문은 글쓴이가 이미 두 차례에 발표한 「국어 교육에서 개정해야 할 용어들 (1), (2)」에 계속되는 것이다.

**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科 教授

그 意義가 있다.

우리 말과 글의 사용에는 여러가지 유형의 오용(誤用)이 따른다. 그 중 1) 역사 인식이 결여된 용어와 국어 교육, 2) 일본식 한자말의 무분별한 사용, 3) 표현상 공기(共起) 관계의 오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미·화용 측면에서 주로 살피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국어 교육 현장에서 일본식 한자말과 언어 오용이 우리 말에 끼치는 영향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언어와 思考의 상호 관련을 보면서, 우리 말과 글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들을 지적하여, 올바른 국어 교육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그리고 많은 유형의 오용 중 굳이 1), 2), 3)의 오용을 대상으로 하여 다루는 것은 그들 사례를 하나라도 더 제시하여 자료로써 우리의 언어 생활과 국어 교육에 활용해 보고자 하는 意圖에서다.

여기에 제시한 事例들은 체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글쓴이의 임의적인 것이다. 아래에서 우리 말 사용에서 잘못된 예를 들고, 각기 그 말의 내력과 원인을 밝히면서, 바람직한 국어의 올바른 표현을 위해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해당하는 말들의 화살표 → 오른쪽 방향으로 고친 것은 글쓴이의 표현이며,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2. 언어와 생각 / 사고(思考)

사람은 언어 사용 이전에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런 점에서 언어 오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사람의 언어와 생각/思考의 상호 관련은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언어 없이도 생각/사고할 수 있는가? 사람과 언어의 관련은 어떤 것인가?

이 점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었다. 사람과 언어의 관계, 언어와 사고/생각의 관계에서 언어관(言語觀)과 사고관(思考觀)에 관한 관점을 보기로 한다. 먼저 언어관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세가지 견해가 있다. 1) 언어

가 사회적 교섭을 위한 사고의 도구(道具)라는, 즉 언어는 사람의 意思 전달의 도구(매체)라는 언어도구관이다. 이와는 달리 2) 사람의 생각/사고가 언어를 반영한다는, 즉 사고가 언어라는 언어일체관(言語一體觀)이다. 그리고 2)의 견해와는 반대인 언어가 생각/사고를 반영한다는, 곧 언어가 사고다 하는 언어형성관(言語形成觀)이다. 여기서 언어도구관은 언어를 사람의 意思(사상·감정 등) 전달의 수단인 하나의 도구(Instrument)로 보는 것이고, 언어일체관은 사고가 언어를 반영한다는 사고 중심의 견해이며, 언어형성관은 언어가 사고를 반영한다는 사고보다 언어를 우선하는 언어 중심의 태도이다.

일찍이 Descartes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Cogito ergo Sum) 라고 했고,¹⁾ 심리학자 올슨(Olson)은 "말의 사용으로 인간은 인간다워지고, 글의 사용으로 인간은 文明化된다."²⁾고 하여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말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창조하고, 언어로써 문명을 발전시키며, 언어 사용 능력은 모든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다.

그리고 언어와 사고에 관한 이론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1. 언어 결정설 : 관념론-강한 가설-언어 상대성 이론; Sapir-Whorf
2. 언어 영향설 : 실재론-模寫說·반영설-약한 가설-언어보편성이론;
Chomsky
3. 상호 작용설 : 1과 2의 중간적 태도에서 본 절충설; Schaff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으나, 대체로 오늘날 개개의 언어는 인지와 사고 과정을 결정한다는 Sapir-Whorf의 언어상대성 이론인 언어 결정설은 덜 인정되고, 개개의 언어는 인지와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Chomsky의 언어보편

1)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思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表象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의식과 인지(認知)이다.
2) "Speech makes us human and Literacy makes us Civilized" D.R.Olson (1977), *From Utterance to Text : 'The Bias of Language in Speech and Written*

성 이론인 언어영향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어에는 언제나 보편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인 면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와 사고는 서로 비례한다는 원리이다.

그리고 언어의 思考觀에 관한 관점은 1) 행동주의 이론의 관점, 2) 언어 상대성 이론의 관점, 3) 언어 보편성 이론의 관점, 4) 認知主義 이론의 관점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견해에 대하여 오늘날에는 1) 언어와 사고를 동일시하는 강한 가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2) 인간의 언어와 사고는 어떤 형식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3) 인간의 기억 활동에 언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오랜 시일에 걸친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하고라도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칸트는 “인식이 대상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말은 인식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말은 사람의 생각(정신)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단순한 기호(도구)가 아니라, 사물과 사람의 의식의 중간에서 사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사람의 의식(생각)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말은 마치 색안경과 같다. 색안경의 색깔에 따라 보이는 사물의 색깔이 달라지듯이 말에 따라 사물을 인식하는 모습이나 태도가 달라진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또한 말은 쓰는 사람의 의식구조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말씨가 일그러지면 생각이 빗나가고, 그러다 보면 행동마저 올바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언어를 갖고 있어서, 즉 언어 사용 능력이 있어서 1) 인간이 모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2)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3) 인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고, 4) 자기의 의사(감정)를 표현할 수 있고, 5) 기억이나 지식을 축적하고 복잡한 事像을 추상화할 수도 있다. 언어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들은 다음에서 다룰 일본식 한자말들과 언어 오용들이 우리말에 끼치는 영향과 그 말들을 쓰는 사람들의 정신(사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어 교육 측면에

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은 그러한 이유에서 <언어와 생각/사고>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3. 언어의 오용(誤用)

언어는 하나의 상징적 수단이며, 의사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다. 나라나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어지러우면 말과 글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진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도 잘못 쓰는 말들이 많아진다.

우선 말과 글은 어휘나 문체에서 서로 구별되지만, 말과 글이 완전하느냐 불완전하느냐에는 차이가 난다. 글보다는 말에 오류나 오용이 더 많이 섞여 있다. 글은 몇 차례의 교정 단계를 거쳐 인쇄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에 오용이 많이 존재한다. 언어생활에서 말과 글이 잘못 쓰이기에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애쓴 분과 애쓰는 분들이 많다. 때로는 그에 대한 시비도 따른다. 1631년 영국에서 "Ye do not"의 not를 빼버린 간음 성경 이야기는 유명하거니와, 청나라 중엽 대학자 30명이 撰한 康熙字典이 나오자 당시 考證學者 王引之가 12권의 字典考證을 발표하여 字典의 잘못을 정정한 것과 1943년에 일본의 渡部温이 약 6000군데의 잘못을 지적한 康熙字典考異正誤를 낸 것들이 그 예이다. 그런데 강희자전의 잘못을 밝힌 渡部温의 책 조차도 첫장 첫줄부터 잘못되어 丈자에 관한 것을 万자에다가 풀이해 놓았음을 볼 때 우리는 착오를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정재도(1981 : 284)). 가장 권위 있고 틀리지 않아야 할 책들이 엉뚱하게 틀린 것들을 볼 수 있다. 언어 오용에 관해 최근에는 멜러프로피즘(malapropism)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이른바 '혀의 실수'라 부르는 '스푸너리즘'(spoonerism)이 있다. 이를테면,

3) D.Fay & Cutler(1977), Malapropisms and the Structure of the Mental Lexicon, *Linguistic Inquiry* Vol. & No. 3 pp.505-520.

(1) ㄱ. You have missed all my history lectures.

ㄴ. You have hissed all my mistory lectures.

(1)에서 ㄱ을 ㄴ으로 말하는 것을 '혀의 실수'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2)는 그것과 다르다.

(2) ㄱ. I love to come here.

ㄴ. I hate to come here.

에서 ㄱ으로 말하려다가 ㄴ의 정반대 뜻으로 말해버린 것은 혀의 실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Spoonerism에⁴⁾ 관한 한 맞는 말일지 모르나, 문법이나 어휘에 관한 잘못을 그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2) ㄴ과 같은 것들을 '프로이드적인 실수'라고 따로 호칭한 것으로 보아, 모든 오류가 단순한 발음상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지적해 왔다. 그리하여 스푸너리즘이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단순한 혀만의 실수 외에 더 깊숙한 머리 속의 잘못—이를 프로이드적 실수라 함—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1)에서 missed로 말한다는 것이 hissed로, 그리고 history를 mistroy로 잘못 발음한 것이 단순한 실수였다면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것은 m과 h의 두 소리가 서로 자리 바꿈을 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런 것은 단순한 혀의 실수라기 보다는 오히려 머리 속의 오류(프로이드적 실수)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2)에서 love 대신 hate가 튀어나온 것도 혀의 실수라기 보다는 프로이드적 실수로 보는 것이다. 이 두 경우처럼 말의 오류에는 일정한 한계와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점에 관해

4) Spoonerism란 두 자 이상의 머리글자를 바꾸어 놓기를 말함.

예 : Received a crushing blow를 Received a blushing crow로 하는 따위 입.

Meringer와 Fromkin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무려 8000여개의 오류를 수집해서 발표한 Meringer로부터 최근에 이들의 체계적 분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Fromkin에 이르기까지, 말의 오류에 관한 한계성과 규칙성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언어생성의 기본적인 절차가 밝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기 때문이다.

한편 멜러프로피즘이라는 어휘적 오류에 관한 Fay & Cutler의 연구에 따르면, 멜러프로피즘의 말씨의 오용은, ㄱ.오용된 낱말은 반드시 진짜 말이어야 하고, ㄴ.목표어와 오용어와는 의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ㄷ.음절 수나 억양형틀로 보아서 두 낱말이 같은 문법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언어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들테면 “If these two vectors are equivalent, then…”이란 말을 “If these two vectors are equivocal, then…”으로 말한 경우가 그 한 예이다.

그리고 David Fay & Anne Cutler가 제시한 표에 따르면, 의미의 실수가 멜러프로피즘 오용(엄밀히 말하면 스푸너리즘)보다는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156개 Malapropisms의 자음과 모음의 비교에서 멜러프로피즘 실수 156개, 의미의 실수 59개를 제시하고, 183개의 어휘를 음운·문법·의미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우리의 머리 속에 들어가 있는 ‘정신적 자세’에 대해 4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Fay & Cutler (1977 : 514-516)).

그리고 Fromkin은 이러한 멜러프로피즘 오류의 분석에서, 음소 자질이나 句 따위의 언어 기술의 단위가 심리적으로 결코 허구가 아니라 실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언어 오용의 규칙성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언어의 모든 분야에서 말의 오류가 생기는데, 음운·어형·문법의 오류와 어휘의 오류와 의미의 오류들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각 분야마다 하위의 오류 형태에는 誤順, 탈락, 첨가, 혼합, 대치들에 따른

5) V.A.Fromkin(1973), *Speech Errors as Linguistic Evidence*, The Hague : Mouton.

오용들이 섞여 있다. 이러한 오류 형태를 비교적 쉽게 종합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이 Dell의 분류표이다.”

언어 오용의 여러가지 유형에는 1) 발음(음운)의 오용, 2) 어형의 오용, 3) 어휘 사용의 오용, 4) 통사구조의 오용, 5) 의미·화용의 오용, 6) 표기법의 잘못, 7) 외국말 번역투의 잘못들이 있다. 그 밖에 8) 誤分析, 9) 訛傳(訛傳), 10) 엉뚱한 말뜻의 넘나들, 11) 말의 실수, 12) 오해나 오판에서 오는 잘못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의 오용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국어 교육 현장에서 허다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우리 국어가 병들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 생기는 언어 오용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에서 어떤 국어의 문법 규칙에 어긋나는 표현 형식을 말한다. 즉 오용은 올바른 관용이나 규범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휘 사용이나 발음, 통사구조, 의미와 표기법들을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오용을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때에는 외국이 아닌 우리의 언어 환경에서 본 현재의 언어 규범에 準據해야 한다.

4. 역사 인식이 결여된 용어와 국어 교육

한 나라의 말과 글은 국민의 의식과 역사의 방향을 좌우한다. 우리는 민족의 뿌리를 잃고, 주체성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인가를 지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역사에서 주체성을 상실한다는 것은 민족성을 상실함과 같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본의 철저한 지배 아래 “너의 역사는 압록강 以南에만 한정돼 있다.”고 가르쳐준 일부 선학들의 일본 제국주의 史觀에 빠져버린 교육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우리 사학계·국어학계였

6) G.S.Dell(1986), “A Spreading Activation Theory of Retrieval in Sentence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93 No. 3, p.285.

김진우(1988), 「言語와 心理」, 한신문화사, pp.327-329.

7) 禹寅燮(1978)에서는 국어 오용 표현의 유형을 11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다. 지난 日政時代(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줄여 日帝시대라 했음)에, 역사 인식이 결여된 채 비판없이 맹목적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일본식 용어들이 우리나라에 수 없이 많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일본식 용어들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의 의식 구조와 일본식 용어가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지금의 우리들은 우리 교육, 특히 국어 교육 측면에서 省察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정시대(심하게 말하면 倭政시대) 일본사람들에 의해 날조, 은폐, 왜곡, 美化되어 그 속에 그네들의 교활한 속셈이 들어 있는 일본식 용어들(특히 우리의 역사성과 민족성이 결여된 채 잘못 쓰고 있는 용어들)을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검토하며 반성하여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올바른 국어 교육을 제승해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쓰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나 뜻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시 되거나 잘못 사용하는 말들이 많음을 보아 왔다. 그 중에서 특히 일정시대에 일본인이 이 땅을 빼앗아 통치·지배하면서 그네들의 언어 의식 구조에 맞추어 말을 미화, 은폐, 왜곡, 날조하여 만든 이른바 일본식 용어들을 이미 다룬 바 있고,⁸⁾ 또 계속해서 여기에 다루고자 한다.

한반도(韓半島), 반도(半島) → 대한민국(大韓民國)⁹⁾

-
- 8) 최규일(1987, 1989), 「국어교육에서 개정해야 할 용어들」(1), (2), 「백록어문」 5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제주대학교 논문집」24집, 제주대학교.
 9) 우리나라 국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Korea/Corea로 적었을 때 Japan [Nippon]이란 일본 국명 다음 순이 되어 있음도 여기에 일본인의 우월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 대영박물관에 보관된 세계지도에 우리 나라 이름이 표시된 Corea의 'C' 한 글자를 바꾸기 위해 일본인들이 돈으로 매수하여 바꿔치기 하려 했던 사실도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美國으로 적는데 비해 일본은 米國으로 적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씨조선(李氏朝鮮), 이조(李朝)시대¹⁰⁾ → 조선시대, 조선조(朝鮮朝)
 일제(日帝)시대 → 일제시대(日政時代), 일본 강점(強占)시대
 개화기(開化期) → 근세기(近世期), 자강기(自強期)
 8.15 해방(解放) → 8.15 광복(光復)
 6.25 동란(動亂)/사변(事變) → 6.25 전쟁, 한국전쟁

우리들은 우리 역사에서 맹고(盲鼓)와 육침(陸沈)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나라가 1900년대로 들면서 일본의 군사적 침략이 본격화되고, 국가의 자존심과 독립이 크게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시대에 생긴 일본식 말들이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역사 인식이 결여된 용어와 일본식 말들을 되는데로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우리의 현실(특히 교육 풍토)이 글쓴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루빨리 시정(是正)을 촉구하면서, 일본식 말들에 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1. 모국어(母國語) → 모어(母語), 자국어, 고국어

일제시대에 일본이 이 땅을 강점(強占)하여 통치·지배하기 위하여, 이른바 일제 식민지 정책은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선어 말살 정책을 강행했다. 1910년부터 시작하여 일본어를 국어로 상용(常用)하도록 하고, 1930년대에는 학교에서 우리말[조선어] 교육과 조선말 사용을 엄금하였으며, 1937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사용을 금하고 일본어를 母國語로 전용하도록 강요했다. 그리하여, 그 당시 '국어'란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를 뜻하며, 조선어는 '諺文'이라 하여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여기도록 하였다. 그리고 '母國語'란 개념 자체가 뜻하는 것은 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

10) '이씨조선'이란 말도 일본인이 오백년 조선왕조를 이씨들의 왕조란 뜻인 이씨조선, 즉 이조(李朝)로 개칭하였는가 하면, 고종황제를 이태왕(李太王), 명성황후를 민비(閔妃)로 격하시켰던 일본인의 속셈을 알아야 한다.

가이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권리가 국민이 아닌 국가가 장악하고 있던 그 당시의 일본 군국주의 하에서는 '모국어'란 말이 가능했을까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말을 처음 배울 적에 어머니한테서 배우지 국가로부터 배우지는 않는다. 흔히 영어 'Mother Tongue'와 독일어 'Mutter Sprache'에 國의 개념이 들어 있지 않은데도 모국어로 번역함은 잘못이다. '母語'란 바로 어머니한테서 배운 어마말이란 뜻이다. 굳이 자기 나라 말임을 부르코자 할 때는 '자국어'(自國語)라 칭한다. 그리고 외국 동포가 고국의 말을 부를 때는 '고국어'(故國語)라 칭하면 된다.

2. 식민지(植民地), 식민지사관, 식민지교육 → 침략[정복]사관, 침략[정복]교육

여기 '식민'(植民)이란 낱말은 자기 나라 사람을 남의 나라 땅에다 살게 한다는 뜻으로, 일본이 이 땅에 이주(移住)·이민(移民)시킨 일본인을 뜻한다. 즉, 남의 나라에 자기 나라 사람을 옮겨 심는다는 뜻이다. 거기에다가 '식민지'(植民地)는 자기 나라 사람을 남의 나라 땅에다 이주·이민시켜서 자기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남의 땅을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는 뜻을 지닌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서두른 것이 식민지 통치에서 식민지사관을 펴고, 식민지교육을 하여, 이 땅에 일본말을 심어 일본 식민지문화를 낳게 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일본말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 현재 우리 국어가 병들어 있다.

한마디로 '식민지'란 이 땅의 주인인 한국인의 존재를 말살하고, 우리를 일본 식민으로 뒤집어 씌운 말이다. 그래서 '식민지사관', '식민지교육', '식민통치'란 말은 '일본 침략사관', '일본 침략교육', '일본 침략학정(虐政)', '조선통치'로 바꾸는 것이 한국인이라는 역사인식을 지닌 자주민(自主民)의 태도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이른바 일제 식민지 정책은 우리나라를 통치·지배하여 우리 민족을 세계에서 소멸시켜 그들에게 천대 받으며 노예처럼 일하는 일

본의 隸屬賤民으로 만들려한 것이다.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 국토를 빼앗고, 주권을 빼앗고, 정치·경제·문화를 예속시켜 착취하였다. 이른바 일본 군국주의(일제 식민지 정책)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 : 1876-1894 ; 침입우방국시대, 참여정책, 약 20년

제2기 : 1894-1906 ; 침략동맹국시대, 간섭정책, 약 10년

제3기 : 1906-1910 ; 침략통감부시대, 유린정책, 약 5년

제4기 : 1910-1945 ; 침략총독부시대, 強占정책, 약 35년

합계 69년

이 69년간을 국권회복시대(1876-1910)와 국토회복시대(1910-1945)로 구분하기도 한다.¹¹⁾

흔히 사람들은 '일제(日帝)36년'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실은 조선총독부시대의 강점(強占) 정책 기간만을 본 것이므로, 실제로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약 69년 동안 일본 식민지의 억압을 받은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69년 동안에 있었던 과거 일정시대 침략의 역사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말(韓末)의 역사에서 일본이 침략한 기간을 한 시대인 일제시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뜻있는 史家들의 定論임도 알아야 한다.

3. 망국(亡國), 실국(失國) →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한때 잠시 주권(主權)을 빼앗겼다가 되찾은 것이지, 나라를 잃었거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外侮를 받은 바는 있지만, 사직(社稷)을 남에게 넘겨준 일은 없다. 그래서 나라를 잃었거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이어오고, 이어가는 우리 민족사의

11) 金敏洙(1984), 「국어정책론」, 탐출판사, PP.494-512.

영원한 맥락으로 볼 때, '망국'(亡國)이니, '실국'(失國)이니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 말을 그대로 쓴은 굴종(屈從)과 자기비하의 증후를 벗어나지 못한 나쁜 타성 때문이다.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 합방(合邦)¹²⁾으로 일본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합해졌다고 하면서, 일본의 강제 침략을 미화시켜 우리를 현혹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일합방'이란 말도 당연히 '일본침탈' 아니면 '일본강점(強占)'으로 고쳐야 하며, '망국'이니 '실국'이니 하는 말은 버려야 한다.

4. 정신대(挺身隊),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

지금은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해진다. 이른바 일제 殘酷史의 만행과 잔인함을 보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일본인이 美化시켜 숨기려 한 '정신대'(挺身隊)란 말의 뜻을 보기로 하자. 韓漢大字典과 국어사전에 따르면,

挺(정) : ㄱ. 뚫을 정; 인재를 뽑음, 뚫 정; 빼냄, ㄴ. 빼어날 정; 훨씬 뛰 어남, ㄷ. 달릴 정; 팔리감, ㄹ. 너그러운 정; 관대함.

정신(挺身) : ㄱ. 솟아남, 앞장 섬, ㄴ. 빠져나감, 탈출함. 「韓漢大字典」

정신대(挺身隊) = 결사대(決死隊) : 죽기를 각오하고 온 힘을 다할 것을 결심한 사람들로 이룬 무리.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1991)

정신대(挺身隊) :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진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저, 1982)

정신(挺身) : [무슨 일에] 앞장서서 나아감. 뚫어나감.

정신대(挺身隊) = 결사대(決死隊) [군사용어]. 「새우리말 큰사전」(신기철 편저, 1988)

사건의 뜻풀이는 이렇지만, '정신대'의 내막을 한번 보자.

12) '한일합방'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부를 수도 있다. 이는 1915년 5월 7일에 체결된 中·日 양국간의 조약일을 중국 국치일(國恥日)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정신대’라는 개념도 일반 국민 사이에는 ‘중군위안부’(從軍慰安婦)와 동일시
 해 온 인식이 지배적인데, 실제로는 ‘근로정신대’와 ‘중군위안부’로 구분된
 다. ‘정신대’란 말은 昭和 19년(1944년) 8월 일본국왕이 칙령으로 내린 ‘여자
 정신근로령’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이 여자정신근로령은 징용 대상의 여
 자 나이를 12-19세로 정해 국교생까지도 징용에 포함했던 사실을 서울 교동국
 민학교 학적부는 입증하고 있다.

“정신대 현장 자료와 日 公式 文書 첫 발견”이란 동아일보 1992년 1월 17일
 자 보도에 따르면,

慰安所 狀況 文書

1. 慰安所 所管 警備隊長及憲兵隊監督下二警備地區內 將校以下爲開業
2. 近來各種慰安設備……, 增加ト共二軍慰安所……
3. 現在從業婦女數概千名内外

일본 방위청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관련 문서 내용을 일본 역사학 교수가 공
 개함으로써 1992.1.10일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이 글은 ‘戰時旬報’의 ‘慰安
 所狀況’이란 문서다. 그리고 정신대 현장 사진 자료 밑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 ㄱ. 몸과 마음을 바쳐 聖戰에 참가한 용사들 환영하자(聖戰大僧 勇士大歡
 迎. 心身捧大和○子)
- ㄴ. 위안소에는 방마다 일련번호가 적힌 표찰이 걸려 있다. 일본군들은 전
 표를 들고 위안소 앞에 두 세 시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십여
 분만에 일을 끝내곤 했고, 행위 전에는 ‘돌격입원’(突擊—番)이라고 쓰
 인 끈뚨를 착용해야 했다.
- ㄷ. 위안소 이용 규정 : 하사관병의 입장요금은 2원이며 입장권 효력은 당
 일에 한하고 실내에서의 음주를 금한다. 그러나 출동전의 군인은 요금
 면제의 혜택을 받았다.

아무리 일본 군국주의 정부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

만, 그렇게까지 비인간적 잔혹 행위를 저지룰 수 있었던가?

광복 바로 전(1944년) 서울 방산국교(당시 경성부 제2부 공립소학교) 6학년 4반(여학생반)에 재학중이던 6명이 정신대로 끌려갔는데, 당시 12세짜리 국교생까지 동원 차출하여 전쟁터의 性的노리개로 짓밟았다는 보도에 끓어 오르는 분노를 차마 억누르기 어렵다. 당시 이 학교 일본인 담임 교사 이케다(池田正枝, 68. 여)는 이 어린 소녀 6명을 뽑아 정신대로 보냈다고 한다. 그때 일본은 이 첩부지들과 그 부모들에게 '皇國臣民'으로서 정신대에 가 '勤勞報國'해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케다는 죄책감으로 한국쪽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독신으로 살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대로 끌려간 중군위안부가 무려 8만에서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일본, 태평양지역, 동남아 등지로 흩어져 위안부 노릇을 했다. 이들은 중군위안부로 차출돼 죽음보다 더한 육신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처녀 공출 출영장'을 받고 며칠을 울며 밤을 지새 차 어느 할머니(69세)는 夜半途走를 결심했다가 붙들려 남양군도 외딴섬의 일본군 진지에서, 하룻밤에도 10여명이 넘는 일본군 병사들에게 시달려야 했고, 급기야는 성병으로 육신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을 이기려고 어느날 눈 속에 투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생을 고통 속에 살다 죽어간 정신대 피해자들과, 일본의 강제 징용, 징병, 생체 실험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혼령들에게 속죄하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의 恥部이기도 한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 우리의 뼈아픈 자성과 각오로 日帝의 殘滓(남은찌꺼기)를 청산할 수는 없는가? 일제 36년이 아닌 69년의 쓰라린 우리 민족사의 진실 규명은 다시는 이런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역사의 거울로서 존재한다. 역사란 진실을 바탕으로 쓰여지고, 미래의 거울로서 탐조(探照)되는 것이다. 과거를 청산해야 밝은 미래가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 아래 탄압받고 억눌렸던 그때에 과연 누구를 위한 정신대이며, 중군위안부였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본인들의 '듣기 좋은 소리의 속뜻', 아니 미화되고 은폐된, 그네들의 속셈이 감추어진 일본식 말의 속뜻을 쫓아가 되었고, 또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어느면에서는 '처녀공출 출영장'(處女供出出迎狀)이란 말에서 '처녀 공출'이란 말로 '정신대'

니 '중군위안부'대신 부르는 것이 나올지 모른다. 단지, 이런 말들은 역사의 증거어(證據語, Mots Témoins)¹³⁾로 남을 뿐이다.

5. 신정(新正)/구정(舊正) → 설, 설날

양력설/음력설 → 설, 설날

'설'이라 함은 보통으로는 슬프다는 뜻이지만, 옛날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는 의미로도 쓰는 말이다. 그래서 '설날'은 '조심하는 날'이라고 한다. 해가 바뀔 正月 초하루에는 일년 내 어느날이고 탈없이 지내게 하여 주신사는 뜻으로 일년 365일의 처음되는 이 날을 극진히 조심하여 지내며, 그해 여려가지 祝願을 정월 초생에 행했다. 이는 무슨 중대한 일이 아무 탈없이 순하게 성취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혹시라도 不正한 일이 있을까 하는 기우 끝에 삼가 조심하라는 뜻에서, '설날'은 '조심하는 날'이라고 한다. 이때문에 정월 초생을 '설'이라고 하고 특히 초하룻날을 '설날'이라고 한 것이다. 漢字로는 '慎日', 또는 '달도일'(恒勿日)이라 쓰기도 한다(최남선, 「조선상식문답」).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설날 : 정월 초하룻날. 예로부터 우리의 첫 명절로서 설빔을 입고, 조상에게 차례 지내며, 성묘도 하고 웃사람에게 세배함. 준말로 '설'(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신정(新正) : 1) 양력설, 2) 새해의 정월 ↔ 구정

구정(舊正) : 1) 음력설, 2) 음력 정월 ↔ 신정

13) 증거어(Mots Témoins)는 어찌 구조의 제보와 조직을 아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된다. 증거어와 함께 열쇠어(Mots Cles)는 그 사회와 그 사회에서 이해되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는 어휘론적 단위이다. 이 증거어와 열쇠어가 되는 어휘를 통하여 한 시대의 사회적 구조를 설명하려고 案出해낸 개념이다.

한자어로는 歲首, 歲時, 歲初, 年頭, 年首, 年始, 新元, 元旦, 元正, 正日, 正初, 들이다.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한때(1959년 무렵)는 이중 과세(二重過歲)라 하여 禁하였다. 陰曆을 못 지내게 하고 陽曆을 쇠게 했다. 치안국에서 떡방아를 못 췌게 한다 해도 설은 역시 음력설이라야 '우리설'같이 여기는 풍습은 지금까지 변함없다.

例陽歲時記에 보면 "스님(僧)들이 除夕날 자정이 지나면 人家의 内外로 돌며 '제올릴 쌀을 주시오.'하고 크게 소리친다. 守護하느라고 모여 앉아 지절 이느라고 밤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 소리를 들으면 벌써 새해가 되었구나 들 한다."고 했다 한다.

高宗 32년(1895년) '始用太陽曆'하기로 정하고 '以開國504년 11월 17일 爲五百年 1월 1일'로 작성한 이래로 양력을 써 왔다. 이로부터 약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설날은 우리의 고유 名節이라는 '名'字 때문인지 양력설 보다 음력설이 우리설이라는 관념이 좀체로 씻겨 나가지 않는다. 음력설과 양력설의 두 갈래에서 우리 고유 전통의 미풍 양식인 설날이 그럭저럭 사라질 위기도 있었다. 게다가 '新正'이니, '舊正'이니 설날 명절을 갈라놓으려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그 내막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못 지내게 하려는 의도는, 온 국민의 단합과 단결을 막으려는 것이었고, 미풍 양속인 우리 고유의 전통을 단절하려는 底意라 하겠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위정자들은 음력설이니, 양력설이니, 신정이니, 구정이니 하는 말을 써서 선량한 국민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편을 갈라 놓았던 것이다. 그 여파로 지역에 따라, 종교에 따라 양력설 지내는 쪽과 음력설 지내는 쪽으로 갈리어 때로는 국민의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었다. 바로 그 점을 일본 사람들은 노렸던 것이다. 하마터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일본인들에 의해 잃을 뻔 했다. 그래도 우리의 고 전통을 찾겠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고유 설날이 지금까지 살아 이어가는 것이 한때는 '민속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지금은 정부가 설날을 공휴일로 정해 명절을 지내게 하니,

한때 신경(양력설)을 지내던 쪽도 음력설(구정)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글쓴이는 용어 사용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의 4대 명절 중 첫번째인 '설날'은 하나이지 둘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름이 '설날'(설)이면 되었지, 무슨 '신정'이니 '구정'이니, '양력설'이니 '음력설'이니 하면서 둘로 갈라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 추석(한가위)처럼 우리 설날을 온 국민이 고유명절로 쉰 때가 와야 한다. 국어사전에 이 말들은 수록할 것이 아니라 빼버려야 한다. 그리고 달력이나 사무용 책자의 제작에도 '신정'과 '구정'이란 글귀를 새기지 말아야 한다.

6. 망년회(忘年會) → 송년회, 해보내기

이 말의 유래는, 원래 우리의 언어사회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 일본의 한 자말에서 침투되어 쓰이는 것이다. 忘年の 올바른 뜻은 '忘年之交'라 하여 나이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맺어진 우정 또는 친구란 뜻으로 쓰인 말인데, 뒤에 일본에서 그 뜻이 왜곡되어 忘年會라고 만들어져 쓰인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검토없이 맹목적으로 차용하여 쓴 것이다. 그 점은 중국어사전에는 '忘年會'라는 말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데, 일본어사전에는 일찍부터 실려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리고 '망년회'라는 말은 뜻으로 보아도 시대에 맞지 않는 퇴폐적인 말이기엔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일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送舊迎新의 반성과 새로운 각오의 뜻으로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 간에 모이는 자리에서 퇴폐적인 뜻이 담긴 '망년회'라는 일본말을 쓸 것이 아니라, 뜻도 맞고 진취적인 '송년회'(送年會) 아니면 순우리말식인 '해보내기'로 고쳐 쓸 것을 제안한다.

이 말과 관련지어 '망중'(忘仲), '기일'(忌日), '근하신년'(謹賀新年)의 일본식 말도 '상중'(喪中)과 '제사'(祭祀)나 '제일'(祭日)과 '새해 인사' 또는 '新年賀禮'의 우리말로 고쳐 쓰면 좋겠다.

- 7. 해외 여행(海外旅行) → 외국 여행(外國旅行)
- 해외 교포(海外僑胞) → 외국 동포(外國同胞)
- 해녀(海女) → 잠수(潛纒)

해외 여행(海外旅行)은 말 그대로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일본같은 섬나라에 산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여행하는 것을 海外旅行이라 하겠지만, 대륙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국외 여행이 꼭 해외 여행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의 언어 의식 구조에서 나온 '해외 여행'이란 말을 비판없이 그냥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인들이 외국을 나갈 때는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만 외국 여행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섬나라 일본 사람들의 언어 의식처럼 굳어버린 셈이다. 즉, 언어 의식화한 경향의 말이다.

남북한이 극한으로 대립하여 있을 때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38度線以南의 지도만을 만들어 우리나라 全圖처럼 여기고, 북한 쪽은 표시하지 않고, 남한의 반쪽만을 표시하였던 지난 일을 상기해 보라. 특히 '반도'(半島)니 '한반도'(韓半島)니 하는 말이 누구에 의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라(최규일(1987) 참고).

자유중국 대만에서는 언제나 대륙 전체의 일기 예보들 하는데, 같은 여건의 분단국이면서도 그 내면에 흐르는 국민들의 의식이 우리의 남북 대결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과 思考 표현인 언어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의 국외 여행도 우리 동포들의 여행이란 점을 고려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해외 여행'이 아니라 '국외 여행' 또는 '외국 여행'(外國旅行)이라고 말해야 올바르다. '해외 여행'이란 말은 섬나라 일본인들의 언어 의식 구조에서 나온 일본식 한자어이다.

그리고, '해외 교포(僑胞)'란 말도 '외국 동포'로 바뀌어야 한다. '교포'(僑胞)의 '僑'字는 남의 집이나 남의 나라에 붙어서 살거나, 타향이나 타국에서

임시로 산다는 뜻이다.

수백만명을 헤아리는 우리 동포가 외국 곳곳에서 당당히 살고 있는데, 임시로 빌붙어서 사는 '교포'라니 우습지 않은가? 이 지구촌 어디에서 사는지를 가릴 것 없이 같은 한 뿔줄임을 인식할 때, 그저 손잡고 감격의 눈물을 짓기도 하는 한 민족, 한 동포(同胞)인데, 어찌서 남의 나라에 임시로 빌붙어서 산다는 '교포'(僑胞)란 말을 써야 하는가? 아직도 '동포'란 소리를 못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빌붙어 살던 시절의 僑胞란 말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해외 여행'이란 말이 일본인의 의식 구조에서 나온 말이었다가 '해외 교포'란 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語意나 語感上 당당하지 못한 말들을 굳이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거나 좋지 않은 말이라면 쓰지 말아야 한다. 한 예로 들면, "在美 僑胞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 "재미 동포 고국에 왔습니다."로 표현해야 옳바르다. 그리고 '해녀'(海女)란 이름도 일제 시대 일본인이 부른 말이다. 제주에서는 원래 '잠수'(潛嫂)로 불렀다. 지금도 나이 드신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면 '잠수'라 했지, '해녀'란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해녀'란 말은 일제시대 일본이 부르던 말을 일본인의 언어 의식화 경향에 따라 불려진 말이다. 그래서 '해녀'라는 일본식의 말을 쓸 것이 아니라 원래 제주말인 '잠수'란 말을 되찾아야 한다. 국어사전에 '잠수'(潛嫂)를 '해녀의 뜻 이름'이라고 풀이한 것도 고쳐져야 한다.

8. 외지인(外地人)/내지인(內地人) →

일본(에) 들어간다/일본(서) 나온다. →

이 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말씨이다. 왜, 남의 나라(외국)에 가는 것을 '들어간다'하며, 제 나라(우리나라)에 돌아오는 것을 '나온다'고 하는가? 지난 날 일본이 이 땅을 침략하여 통치·지배하던 시대에 조선 총독부 관리와 그 屬官 一族들이 조선은 '外地'인 식민지이고, 저회네 본토인 일본은 '內地'라 하여, 일본 사람은 '內地人'이요, 우리 조선사람은 '外地人'으로 불러 구별하

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 '內鮮一體'라 하여 一視同仁이니 뭐니 하면서 韓日 同根說까지 주장하려 했었다. 여기 '내선일체'란 말도 內는 일본이고 鮮은 조선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의 언어 의식 구조에 따라 "일본 들어간다", "일본서 나온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제 고장 제 집에 갈 적엔 '들어간다' 함이 저들로서는 당연히 옳은 말이었겠으되, 우리나라 사람이 덩달아 "일본 들어간다"함은 주객전도이다. 이는 과거 일본인들이 內地人 ↔ 外地人하던 말을 따라하던 殘影이다. 이는 주객전도된 의식이요, 정신 倒錯이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런 주체성 없고 업수이 여기는 무분별한 말씨를 삼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자어로 渡日, 渡美니 하는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말들은 좋지 않으니 쓰지 말아야 한다.

말씨가 일그러지면 생각이 빳나가고 그러고 보면 행동마저 올바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先人들의 잘못된 말씨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따라 쓴다면, 그것은 듣고 자라는 후세들에게 계속 옮겨져, 영영 병폐를 치유할 길이 없을 터이니, 참으로 두려운 노릇이 아닌가?

말을 사용하는 주체/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말이 다를 수가 있다. 한 예로 중국의 '火車'가 일본어로는 '汽車'가 되고 일본어의 '自動車'가 중국어로는 '汽車'임을 들 수 있다. 중국인은 석탄이나 장작으로 불을 뿜으로써 기관차가 움직이니까 火車를 표면에서 본 명칭인 데 비하여, 일본인들은 증기의 힘으로 기관차가 움직이니까 汽車를 내용면에서 본 명칭이다. 이에 반해 중국인들이 자동차를 汽車라고 한 것은 폭발된 氣體로 움직인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에 한해서는 일본인들이 歐洲語를 직역하면서 그 표면을 본 데 반하여 중국인들은 그 내용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동차' 엄밀히 말하면 차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人動車'라 해야 옳다. 차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에서도 그 이름이 다르듯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 주체/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다름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다룬 용어들은 일본인 측에서 본 일본식 말들이니, 우리 한국인

측에서 볼 때에는 맞지 않다. 바로 이 점이 언어 의식에서 본 말의 독자성/주체성 문제인 것이다. 한마디로 위에서 다룬 용어들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 묻고 싶다. 위에서 다룬 용어들은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본을 위해 생겨난 말들이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거나, 그냥 따라서 맹목적으로 이런 말들을 써 왔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위에 지적한 일본식 말들을 쓰고 있다. 우리의 국어 교육과 우리의 민족 精氣와 국어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위의 일본식말들은 고쳐 바로잡아 쓰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적어도 국어사전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 그런 시대도 지났으니 위에서 다룬 일본식 말들은 바꾸거나 아예 버려야 한다. 그것은 다만 잘못된 언어 유산으로 남을 뿐이다.

5. 일본식 한자말의 무분별한 사용

이 장에서는 우리말이 아닌 특히 일본식 한자말의 무분별한 사용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 글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에서 우리말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말이나, 이른바 일정 시대에 비롯된 잘못된 말버릇, 잘못된 글버릇을 고쳐 바로잡아 보자는 데 있다. 국어사전에서 일본말 찌꺼기를 몰아내고, 우리말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함부로 쓰지 말고, 가려 써야 할 말과, 글이 있음을 알자.

9. 본인(本人) → 나 / 저

본고(本稿) → 이 글, 이 원고, 이 논문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貴國)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본인(本人)은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습니다.”는 일본왕의 인사말이다. 여기에 쓰인 ‘본인’(本人)을 비롯한 本稿, 本校, 本社, 本島, 本土, 本國, 本府 들의 말들은 일본투의 영향을 받아, 일본말을 따라

국어교육에서 고쳐 바로잡아야 할 말과 글

쓰러다가 이런 꼴이 됐다('本府'는 그 당시 '조선총독부'를 지칭했다.).

이같은 말에서 '본'(本)은 '日本'이라는 나라 중심의 말 만들기 결과이다. '본'(本)이 들어 간 낱말은 거의 일본식 영향을 받아 쓰인 말이라 할 수 있다. 이 말들은 日政時代 우리나라 일본식 교육 현장에서 생긴 어휘들이다. 그 당시 일본인과 일본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의 철저한 日人(니쵸(Nippon))정신을 이들 말에서 보게 된다. 日本人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원칙을 다데마에(建前)로서 말하고 있지만, 속셈은 실리를 찾는 데 주저함이 없는 행위를 일삼는 혼네(本音) 정신이 있다. 日政時代 京城師範學校니, 京城語니 하는 식의 '京城'은 일본 東京의 京을 우리 首都名에까지 붙였다.

이 기회에 일본 정신이 들어 있는 이런 말들을 몰아내어 좋은 우리식 말로 살리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본인도 모르는 혼인 신고 → 자신도 모르는 혼인 신고"로, '本稿의 목적은 → 이 원고/글의 목적은'으로 표현하면 훨씬 우리말이 살아난다.

10. 입장(立場) → 처지(處地), 태도, 견해, 쪽

무슨 성명서 같은 글 제목에 "우리의 입장(立場)..."이니, "나의 입장(立場)"이니 하는 '입장'(立場)은 우리말이 아닌 일본말이다. 광복 뒤 이 말이 일본말이라 해서 문교부에서 낸 「우리말 도로 찾기」(1955) 책에서 '처지'(處地)란 말로 쓰자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입장'이란 말을 쓰고 있는가? 이 말을 대신할 우리말은 없는가? 아래 몇 경우를 생각해 보자.

- ㄱ. 제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하다.
- ㄴ. 아버지 입장에서는...
- ㄷ. 부시는 L.A 육인 폭동에 즉각 입장을 밝히다.
- ㄹ. 현 교육 풍토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

이와 같은 표현에서 ㄱ과 ㄴ은 '처지'나 '쪽'으로 쓰면 되고, ㄷ과 ㄹ은 '태도'로 쓰면 바른 우리말 표현이 된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 다른 말로 써야 할

것을 똑같이 '입장'으로만 쓰고 있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일본말을 따라 쓰는 언어 의식 문제도 있거니와 굳어진 말의 틀에 갇혀 있는 말 버릇이 문제이다. 좋지 않은 언어 관습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말을 살리도록 하자.

11. 역할(役割) → 구실, 할일, 노릇, 소임(所任)

이 '역할'(役割)이란 낱말도 일본식 한자말이다.

- ㄱ. 대학의 역할
- ㄴ. 부모의 역할
- ㄷ. 대학생이 해야할 역할

이러한 표현에서 ㄱ은 '소임'(所任), ㄴ은 '구실', 또는 '노릇', ㄷ은 '구실' 아니면, '소임'으로 쓰면 좋은 우리말 표현이 된다. 앞 뒤 상황에 따라 어울리는 말을 찾아 쓰면 될 것이다. 굳이 '역할'(役割)이란 일본식 한자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이럴 때는 우리말로 '할 일'이라 쓰면 알맞다.

12. 상담(相談) → 면담(面談), 상의(相議)

'상담'(相談)은 학교의 '교육상담'이나 '상담실' 등의 말에 보편화 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말도 실은 일본식 한자말이다. 원래 전통적 한국 한자말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한다. 원래 우리 말로는 相議, 議論, 協議, 問議 등의 낱말이 있으며, 面談이란 말도 좋을 듯하다. 광복 이후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퇴치운동이 고조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일본식 한자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있었던 고유 한자어를 누르고 일본식 한자어가 통용되는 예를 남기는 경우이다[심재기(1982: 46-47)].

13. 일가견(一家見) → 권위(權威)

“○○에도, ○○방면에도 일가견(一家見)을 가졌다.”는 말의 ‘일가견’(一家見)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실 ‘일가견’은 우리말이 아니다. 전에는 우리말 사전에도 없었다. 최근에야 우리말 사전에 올려 놓은 이 말의 풀이를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는 일정한 체계의 전문적인 견해’라 했다. 일본어사전을 보면 ‘독특한 주장이나 학설’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어느 한 방면, 어떤 문제에 대해 갖춘 일정한 체계의 전문적인 지식’ 보다는 ‘자기만의 독특한 주장이나 학설, 또는 그 견해’라는 뜻으로 일본어에서는 쓰인다.

“그가 피력한 일가견이 그럴듯 하지?”로 쓰이는 ‘일가견’이란 ‘잇까젠’(一家見)이라는 일본어다. 껌데기 지식이나, 피상적 지식에서 凡人은 오만해지고 설익은 一家見을 마구 휘두른다.

‘어떠한 방면의 일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표준’이란 뜻을 지닌 ‘권위’(權威)란 우리말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권위자, 또는 비슷한 말로 대가(大家)란 어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자.

14. 기라성(綺羅星) →

“기라성 같은 인물”에서 ‘기라성’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기라’(綺羅)는 ‘곱고 아름다운 비단’이다. 여기에 별(星)이 붙었으니 ‘비단으로 고이 싼 별’ 아니면, ‘별이 곱게 수놓인 비단 자락’처럼 빛난다는 뜻인 듯 싶은데, 국어사전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 또는 밝은 것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라 했다. 그럴 듯한 해석이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일어의 ‘끼라보시’(綺羅星)였다. 달리 ‘煌星’이라고도 한다. 어느 분은 일어의 ‘끼라끼라 호시’(뽀짝이는 별)가 漢字를 빌어 쓴 말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그렇다면 ‘기라성 같은 인물’이 있으면 ‘항성같은 인물’도 있어야 한다. 언어에서도 트기말이 있다. 트기말 치고 품위 있고 고상한 말은 거의 없는 성싶다. 더구나 트기말인지 뭔지 그 계통과 태깅을 가름하기 어려운 정체 불명의 세속어가 난비한다. 이 정체 불명의 세속어 중 가장

격조 높고 고상한 말로 착각하여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기라성'이다. 더구나 '기라성 같은 인물'하면서 극찬하는 말투가 귀에 거슬린다. 우리는 잘못된 인식의 固定化를 탈피하는, 말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15. 장본인(張本人) → 괴수(魁首), 주모자

'장본인'(張本人)은 중국식 한자말로서 그 뜻이 우리에게는 천와(舛訛)된 것이다.

이 말의 출전은 ① 傳具其事 爲復晉事張本(左氏春秋傳), ② 爲來世張本(白居易詩)에 나오는 것이다. ①의 경우는 '본래 주장함, 근본적으로 베품'이란 뜻이고, ②의 경우는 '본래의 주장'인 좋은 뜻으로 쓰이었다. 그 이후 '장본'(張本)이란 말을 우리나라와 일본이 차용하여 쓰면서, 그 뜻이 글자나 말의 뜻이 잘못 전해진 舛訛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사전에는 '장본인'은 '나쁜 것의 괴수(魁首)'라는 뜻으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장본인'이란 말은 나쁜 일에 바탕을 베푸는 사람이다. 즉 주동자, 주모자, 괴수(魁首)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 말이 흔히 잘못 쓰인다.

- ㄱ. 3.1 운동의 배후 주도 세력을 이문 장본인 중에는
- ㄴ. 맨마르크를 부흥시킨 장본인은 그룬트비이다.
- ㄷ. 인도사람의 머리에 독립정신의 기를을 내린 장본인이 간디라 한다면,

이쯤에 이르면 이같은 표현이 몹시 거슬린다.

그리고 흔히 '장본인'과 '주인공'의 두 어휘를 사용함에 혼동을 하고 있다.

- ㄹ. 그 미담(美談)이나 화제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 ㅁ. 그 화제와 미담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ㄹ과 같은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ㅁ의 표현은 바르다. '장본인'이란 낱말은 좋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좋은 의미로 쓸 수 없는 말이다. 두 낱말의 사용에 유의했으면 한다.

16. 수렴(收斂)하여 → 모아, 얻어

‘수렴’(收斂)의 뜻이 ‘모을 수, 거둘 수’에 ‘모을 렴, 거둘 렴(斂)’이다. 원래 ‘수렴’이란 말은 돈이나 물품을 거둬 모으거나, 세금을 징수한다는 뜻이다. 禮記의 命百官始收斂(백관에게 명하여 거둬들이기 시작했다.)를 보아도 세금이나 공물(貢物)을 거둬들인다는 뜻이다.

국어사전도 이와 비슷한 뜻풀이에 ‘방탕한 사람이 반성하여 오므라들’이란 뜻까지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民意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의 표현은 민의나 의견을 돈이나 세금처럼 거둬들인다는 강제성을 띤 말이 된다. 어찌 민의/의견을 거둬들인단 말인가? 그리고 ‘收斂’이란 글자도 어렵다. 收斂을 收斂으로 적기도 하고 斂을 ‘검’으로 읽기도 한다. 아무튼 뜻도 좋지 않고, 글자도 틀리기 쉬운 낱말이다. 그냥 쉬운 우리말로 “민의를 모은다.” 아니면 “민의를 얻는다.”가 한결 점잖고 쉬운 표현이다.

한편 “우리/나는 ○○○으로 사료(思料)된다.”는 표현에서 ‘사료’(思料)도 일본말이므로 그냥 우리말인 “○○○로 생각한다/여긴다.”로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다.

17. 혜존(惠存) → 드림, 謹呈, 淸覽, 叱正

국어사전에는 저서나 작품을 남에게 줄 때 ‘받아 간직해 주십시오’의 뜻으로 ‘받는 이의 이름 밑에 쓰는 말’로 풀이해 놓았다. 그런데 일본말에 惠存(계이손)이란 말이 있다. 일본 廣辭典에는 ‘제발 손 가까이에 놓아 주십시오.’이다. 이는 “삼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는 뜻이다. “은혜로운 뜻으로 받아 간직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敬意로써 드린다는 뜻이다. 어떤이는 “받아서 서가에 꽂아 주십시오.”란 뜻으로 ‘삼가’(挿架)란 말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누구누구 선생 아감(雅鑑)이란 말을 쓰지만 글자가 똥기는 뜻이 명확하지가 않다. 아무튼 “○○○선생 惠存”이니, “○○○군 惠存”은 아둔

하고 명칭한 제자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바보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惠存, 惠鑑(높은분께 드릴 때 썼음)보다는 “드림, 청람(淸覽), 질정(叱正), 謹呈, 삼가 드림”들로 적기를 권장한다.

18. 낭만(浪漫) → 멋, 로망

우리나라에 ‘낭만’(浪漫)이란 말이 들어온 지도 꽤 오래 된다. 이 말은 프랑스말 ‘Roman’에서 나온 말이다. 그 어원은 라틴어의 ‘로마니스’로서 ‘속어로 씌어진 설화’를 뜻하는 말이다. ‘기이하고 가공적이며 감성적이고 경이적’이라는 뜻을 지닌 이 말은 불어 Roman을 일본사람들이 번역 표기하면서, 일본식 발음으로 ‘로망’과 가까운 한자(글자의 뜻은 없음)로 일본식으로 표음적으로 표기한 浪漫, 浪漫, 魯漫이었다. 이 중 浪漫과 魯漫은 버리고 浪漫을 쓰기로 했던 것이다. 이같은 프랑스말인 ‘로망’의 일본식의 표음적 표기가 우리나라 낭만주의 문학 태동기에 차용되어 그대로 써 온 것이 ‘낭만’(浪漫)이다.

‘물결 浪에 흠어들어질 漫, 방종할 漫’은 ‘로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漢字를 좋아하고 자랑하려면 차라리 魯漫으로 적든지, 아니면 그냥 불어 그대로인 ‘로망’으로 하든지, 순 우리말로 ‘멋’이라 하면 어떨지? 낭만이 뭐길래, “대학은 낭만이 있는 곳, 낭만을 키우는 곳을 → 대학은 멋이 있는 곳, 대학은 멋을 키우는 곳”으로 말하면 더 멋진 표현일 것이다.

이상에서 다룬 일본식 한자 어휘들은 우리 국어사전에서 몰아내고,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면서 되도록이면 좋은 우리말로 살려 쓰도록 했으면 한다. 이 밖에 원고지 ○○매(枚) → 원고지 ○○장, 사료(史料)된다 → 생각한다, 노견(路肩) → 길섶, 적자 → 빗, 손해 따위의 많은 일본식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 말을 살려 쓰면 좋겠다. 이 말들에 대해서는 지면 사정으로 다루지 못하고 즐인다.

6. 어휘 의미면에서 본 공기관계의 오용(誤用)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냥 단어 / 어휘만을 나열한다 해서 말과 글이 되는 게 아니다. 앞 뒤 말과 글의 뜻이 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기관계에 맞아야 한다. 언어학에서 공기관계[共起關係, Cooccurrence relation]에는 1) 단어나 문장의 호응, 2) 단어나 문장의 일치, 3) 어휘 선택의 제한/제약 등이 있다. 이를테면,

- ㄱ. 그는 그녀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 ㄴ. *그는 내일 회의가 있다고 잊었다.

이 두 문장은 특정한 보문소(Complementizer)와 특정한 동사의 공기관계나 선택상의 제한의 한 예이다. 두 요소간에 나타나는 선택상의 제한은 공기 제한(Restriction)에 놓인다. 그래서 ㄴ은 비문이 된다.

- ㄷ. *새벽 한시에 화재가 발생하다.
- ㄹ. *안전 사고 예방에 주의하자.
- ㅁ. *주택지로서는 면적이 가장 많다고 한다.

ㄷ은 '새벽'과 '한시'가 ㄹ은 '안전'과 '사고'가 ㅁ은 '면적'과 '많다'는 두 어휘의 뜻이 어울리지 않기에 틀린 문장이 된다.

이처럼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이러한 어휘의 공기관계를 고려하여 말과 글을 사용해야 한다. 말과 글의 앞 뒤 관계들 살펴서 적절한 어휘 선택을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그런 점에서 다음 말들을 어휘 의미면에서 본 공기관계의 오용을 통하여 살피기로 한다.

19. 감사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래 학생들은 흔히 “그 동안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선생님에게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먹고 싶다’나 ‘가고 싶다’가 아직 그 행동이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감사하고 싶습니다.’도 아직 감사의 표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감사하고 싶습니다.”는 강조 표현이 아니다. 직접 만나서도 감사의 뜻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언제 표현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한 말이다. 더욱 심한 예는 ‘예쁘고 싶다’나, ‘기쁘고 싶다’처럼 어법에 틀린 말까지 쓰이고 있다.

‘고 싶다’는 반드시 동사 경우만 쓰이고, 형용사에는 쓸 수 없다. 만약에 형용사를 ‘고 싶다’의 어형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조동사 ‘지다’를 붙여서 ‘예뻐지고 싶다’로 말하면 된다.

20. 허무감을 느낀다. → 허무함을 느낀다, 허무감을 갖는다.

허무감(虛無感)이란 ‘허무하게 보는 감정’이란 뜻인데, 여기에 다시 ‘느끼다’를 붙이면 “허무한 느낌을 느꼈다”라는 같은 뜻의 말이 겹치게 된다. 이러한 의미가 겹치는 접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표현을 언어의 잉여성(Redundancy)이라 한다. 그래서 ㄱ. “허무감을 갖는다.”, ㄴ. “허무함을 느낀다.”로 고쳐 말하는 것이 좋은 표현이 된다. 이것은 “고독감을 느낀다, 행복감을 느낀다, 만족감을 느낀다.” 경우도 다 마찬가지다. 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상을 당하다, 부상을 입다, 피해를 입었다.” 따위 표현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부상하였다, 상처를 입었다, 다쳤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는 관점에 따라”도 “관점에 따라, 보는 이에 따라, 보기에 따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바르고 좋은 표현이다.

말과 글을 할 때, 언어 잉여 현상인 의미가 겹치는 접말 사용은 피하는 게

국어교육에서 고쳐 바로잡아야 할 말과 글

좋다. 의가집, 처가집, 역전앞, 오월달, 토요일날, 7일날, 새신랑, 새신부, 청천-하늘…… 스스로 자각한다, 스스로 자부한다, 스스로 자만한다, 서로 상의해서, 서로 상통한…… 이처럼 우리는 일상 언어 생활에서 동의어를 겹쳐서 사용하는 말버릇을 많이 보게 된다. 이제 우리들은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좀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21. 피부로 느낀다. →

“피부로 느끼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에서처럼 “피부로 느낀다”는 말이 자주 쓰인다. 우리의 五官 중 눈·코·귀·혀의 감각을 제쳐놓고 ‘피부의 느낌’ 즉 촉감을 앞세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어느 심리학자는 무엇인가 만져 보고 피부로 문질러 느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일종의 場的 성취 욕구의 불만에서 발산하는 것이라고 이 말에 대한 견해를 말하기도 한다. 사람의 피부라는 것이 또 손, 발, 얼굴, 가슴, 허리, 발바닥 등 신체의 모든 부위에서 느끼는 감각이 다 다르다. 사람의 피부에는 보통 370만 개의 신경 終末이 깔려 있다. 그 중 冷과 溫이 20만개, 觸과 壓이 50만개, 痛신경 終末이 3백만개라고 한다. 따라서 피부의 감각은 觸·痛·壓·冷·溫의 다섯이고, 그중 아픔을 가장 잘 느끼며, 溫보다는 冷을 더 잘 느끼는 것이 사람이다. 파충류나 달팽이가 가장 피부 감각이 예민하다. 이 동물들에게는 “피부로 느낀다”는 말이 잘 어울릴지 모른다. 그러나 오관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실로 우스운 표현이다.

22. 발자국 소리 → 발소리, 발걸음 소리

‘발자국’은 足跡, 곧 발로 밟은 흔적의 형상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소리가 날 수 없다. 눈 위를 걸으면 푹푹 소리가 나고 거기에 발자국이 생기지만, 그것이 ‘발걸음 소리’는 아니다. 그래서 ‘발자국 소리’는 ‘발걸음 소리’ 아니면 ‘발소리’라 하여야 바른 말이 된다. 그리고 ‘발자욱’, ‘발자취’는 足跡

을 이르는 말이다. 한편 ‘발자육’, ‘발자죽’은 표준말이 아닌 방언이다. 흔히 쓰는 ‘발자국 소리’는 의미상 호용되지 못한다. 공기관계에 어긋난다.

23. 교통 사고 많은 곳 → 교통 사고 잦은 곳

도로 표지판에 ‘교통 사고 많은 곳’을 늘 보게 된다. 이보다 먼저 ‘교통 사고 다발지역’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교통사고 많은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말은 語意上 맞지 않다. 이 말에서 ‘많은’은 사고가 한 곳에서 겹치기로 발생하여, 같은 시각에 여러 차의 사고 현장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교통 사고가 겹치기로 발생하는 일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표지판을 세워 놓아야 할 만큼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합당한 의미의 표지판으로는 ‘교통 사고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고 해야 한다. 너무 길어 줄 인다면 ‘교통 사고 잦은 곳’이라 하면 될 것이다. 우리말에 ‘많다’와 ‘잦다’는 전연 다른 개념이다. ‘많다’는 공간상의 여건이 전제된 말이고, ‘잦다’는 시간상의 여건이 전제된 말이다. 어느 위험한 지역에서 시간적으로 교통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는 있어도, 한 지역에 차가 많이 몰려와서 사고를 동시에 많이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유관 당국에서는 하루 속히 올바른 고쳐 줄 것을 촉구한다.

24. 상당(相當)한 사람 → 마땅한 사람, 걸맞는 사람

“상당한 자리가 상당한 사람을 만든다”, “상당한 곳발과 상당한 영향력은 비례한다”에서 ‘상당(相當)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상당하다’는 말은 이 밖에도 ‘상당히 비싸다, 상당히 높다, 상당히 많다, 상당히 짜다’로 흔히 쓰인다.

그런데 이 말이 거의 잘못 쓰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 ‘상당(相當)하다’는 1.알맞다, 2.서로 가깝고, 서로 마땅하고, 서로 어금지금하다

는 뜻이다. ‘대단하다’나 ‘엄청나다’에 가까운 뜻으로 쓰일 말이 아니다. “한 달 월급에 상당한(맛먹는) 돈을 날려버렸다.”, “그 총각에 상당하리라 믿는 처녀가 있다.”, “그 지위에 상당한(마땅한) 행세를 해야지……”, “그 체력에 상당한(걸맞는) 酒量”처럼 쓰여야 할 성질의 말이 ‘상당한’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 ‘대단한 정도에 가까움’이라는 풀이를 덧붙여 놓아 우습다. 이렇게 말뜻의 엉뚱한 넘나들고 와전(訛傳)에서 오는 오용을 용서하는 사전의 풀이가 문제이다. ‘대단한 정도에 가까움’이란 풀이말은 ‘상당하다’와 그 뜻의 거리가 멀지만 풀이말 그 자체도 우습다. ‘대단한 정도’면 정도, ‘대단함에 가까움’이면 가까움이지, ‘대단한 정도에 가까움’이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정도’ 자체가 ‘가까움’이나 ‘약간 모자람’, 또는 ‘넘침의 뜻’을 내포한 말이 아닌가. 국어사전 편찬자의 어휘에 대한 뜻풀이가 한심하다. 말에 대한 理解가 아닌 理會 능력이 아쉽다.

25. 귀가 막힌 미인 → 기막힌 미인

‘귀가 막힌 미인’에서 ‘귀가 막힌’은 잘못된 표현이다. 어떡하다 귀(耳)가 막히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맥을 따지면 ‘氣막힌 일’로 알 수 있다. 귀에 귀에지가 꼭 차 있어서, 또는 수영하다가 물이 귀에 들어갔더라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가 잘못 돼서 힘이 쪽빠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다음 할 일이 얼른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기가 막히다’이다. “기가 막혀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를 잘못하여 ‘귀가 막히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로 적거나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니 유의해야 한다.

26. 낙관(落款)을 받다 → 낙관인 / 도장 / 인장을 받다.

‘낙관(落款)’이란 말은 원래 ‘落成款識’의 略語다. 이는 곧 書畫를 완성하고 나서 작자가 성명과 年月을 쓰는 것이 ‘落款’의 원 뜻이다. ‘낙관’을 ‘관지’

(款識)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 말은 고대 청동기에 새긴 문자라는 뜻으로, 款은 陰刻字 識는 陽刻字를 말한다. 그러므로 '낙관'은 서화에 찍은 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화가가 자신의 성명을 기록하는 자체가 '낙관'이다.

"鑑賞의 落款이 50여개나 적힌 神品을 직접 대한다는 조바심으로 곁을마져 바꿨다." 이 글에서 '落款'은 원래의 뜻과는 맞지 않게 쓰이었다. 여기서는 마땅히 '낙관'을 '도장'이나 '印章'으로 고쳐야 한다. 서화가가 성명을 쓰고 찍은 도장을 '落款印'이라고 해야지 '낙관'(落款)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즉 '낙관'은 도장을 일컫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낙관을 받다."는 "낙관인을 받다, 도장/인장을 받다." 로 바꾸어야 한다.

27. (주둥이) 닥치지 못해! → 입 좀 달아! (주둥이) 달지 못해!

"주둥이 닥치지 못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우리는 "닥쳐!"라는 말을 흔히 잘못 쓴다. 흔히가 아니라 거의가 잘못 알고 잘못 쓴다. '입을 달는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닥쳐, 닥쳐라!"가 아니고, "달쳐, 달쳐라!"이다. 달으라는 뜻이다. "돌다 → 돌치다, 뺨다 → 뺨치다"의 쓰임과 같이 '달다'에 강세접사 '치'가 끼여들어 센말인 '달치다'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점잖게 말하면 "입 좀 달아!"가 된다. "주둥이 닥쳐!"하면 "주둥이 다가와!"라는 뜻이 된다. "주둥이 닥치지 못해!"는 "주둥이 좀 다가오지 못해!"가 되어 남의 입을 다가오래서 어쩔 셈인가? 남이라면 곤란하다.

28.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 →

국어에 '있다'는 1)주어를 간접 존재할 때는; 있으시다(예: 선생님이 방에 계시다.) 2)주어를 직접 존재할 때는; 계시다(예: 선생님께서 시간이 있으십니까?)로 말해야 한다. 우리말의 경어 사용은 상대방에 따라 격에 맞도록 말해야 한다.

"날씨가 무척 추우신데 주부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

다.” → 이 표현에는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날씨에 경어 사용은 곤란하다. 둘째, 주부에 ‘님’자를 붙여 부르는 것은 어색하다. 어떤 단어에 무조건 ‘님’을 붙여 말하는 게 아니다. 셋째, “수고 많으십니다.”란 말은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다. 말은 상대방에 따라 격에 맞도록 해야 한다(최규일 (1992.1.)).

29. 바라겠습니다 → 바랍니다

“○○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휴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식의 말을 자주 듣는다. ‘바라겠습니다’에서 ‘겠’은 희망의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바라다’는 말 속에 ‘겠’이 들어가면 같은 의미의 말이 중복되어 의미 중복으로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는 마치 ‘희망하겠습니다’, ‘원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어색함과 같은 이치이다. ‘희망하다’, ‘원하다’라는 말 속에 ‘겠’이 지니는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바라겠습니다’는 ‘바랍니다’로, 아니면 “제출해 주십시오.”로 바로 잡아야 한다. 자주 쓰이는 우리말에서 혼동하여 말들을 잘못 쓰는 경향이 많다. 정확한 언어 습관으로 올바른 언어관을 갖도록 하자.

30. 참되자 → 참되게 살자

학교 교훈 같은 데서 “참되자, 참되게”라는 표현을 대하게 된다. 우리말에 ‘되자’는 동사이고, ‘참되다’는 형용사이다. 원칙적으로 형용사에는 청유형이나 명령형이 쓰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아름답다’에 청유형을 써서 ‘아름답자’, 명령형을 써서 ‘아름다워라’라고 할 수 없다. 감탄형의 ‘아름다워라’는 가능하다.

따라서 ‘참되다’는 형용사이므로 청유형인 ‘참되자’는 어법에 어긋난다. 꼭 ‘되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으면 뒤에 동사를 넣어 “참되게 살자”, “참되게

배우자"로 나타내야 바른 표현이 된다.

31. 하나님 말씀 → 하느님 말씀

"말은 쓰는 사람이 입자다."라고는 하지만, "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에 우리 모두가 무감각이거나 언어 不感症에 걸린 모양이다.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문법에 어긋나고, 종교적인 신앙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우리말에는 두 단어가 결합할 적에 일련의 법칙이 따른다. 이를테면,

아들 + 님 → 아드님, 딸 + 님 → 따님, 숲 + 나무 → 소나무 따위.

이것은 선행어의 받침 ㄹ이 탈락한 음운 변화이다.

마찬가지로 "하늘 + 님 → 하느님"이 된다. 여기 하늘은 天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 + 님 → 하나님"이란 단어 형성을 예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 국어에서 '하나'란 數詞에 '님'이 붙는 경우는 '하나님' 뿐이다. 수사에 '님'이 붙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수하는 것은 종교 신앙면에서도 독선적인 점이 강하게 풍긴다. 오직 하나라는 唯一神의 개념으로 자기 종교(신앙)만이 최고요, 다른 종교(신앙)는 異端視하는 인상이 짙다. 어떤 종교(신앙)이든지 신앙에는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똑같은 것이다. 지나친 주장은 독선을 낳는다.

'하느님'이 아닌 '하나님'은 국어 어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명 잘못된 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보다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이 깊은 진리의 말씀에 더 적합한 말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회에 한번쯤 고려해 보기 바란다.

우리말 공부 좀 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언어 습관으로 올바른 국어 표현이 되도록 하자.

7. 결 론

모든 학문을 포함한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개념과 뜻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과 글을 옳게, 바르게,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뜻(의미)이 통하는 말과 글이어야 한다. 뜻이 통하지 않는 말과 글은 알맹이(내용) 없는 죽은 언어라 할 수 있다. 뜻이 통하는 말과 글을 쓰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말의 뜻(의미)을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검토없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해 온 과거 역사 인식이 결여된 일본식 용어와 일본식 한자말의 무분별한 사용과 공기 관계에서 오는 말(글)의 오류들을 주로 그 말의 뜻을 다루면서 언어의 의미·화용면에서 살펴보았다.

아무리 널리 통용되어 쓰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말을 더럽히고 해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 바로 써야 한다. 그리고 일본인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병들고, 국어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일본식 한자말들을 우리말 우리글답게 다듬어 써야만, 손상된 역사 인식과 병든 우리말이, 그리고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의 병든 정신이 고쳐질 것이다. 말을 사용하는 사람/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말이 다를 수가 있다. 앞에서 다룬 일본식의 용어들은 그 말이 일본 측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우리 한국 측에서는 맞지 않다. 이는 언어 의식에서 생기는 언어의 주체성/독자성 면에서 보아도 그렇고, 국어 순화, 국어 정화 측면에 보아서도 고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비록 일반인은 몰라서 종래의 습속이나 관례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히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이고 바른 말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언어를 사용하며, 그 언어는 그 사람을 대변한다. 언어는 사람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의 거울이며, 감정과 생각/思考의 표출구이다. 따라

서 한 언어는 그 국가나 민족의 사상, 감정, 정서 등의 모든 정신 활동을 담는 그릇이 된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담긴 우리말을 사용해 왔다. 그 동안 많은 수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말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뿌리 깊은 정신이 담긴 국어를 다듬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한때 정복자(征服者) 일본은 우리 조선인에게 처음은 무력으로 위압하고, 그 다음은 교육으로 회롱(戲弄)하고, 다음은 법률로써 고압(高壓)하였다. 정복자는 피정복자에게 열등족(劣等族)이라는 관념을 強制하기 위하여 노예교육 제도를 실시한다. 피정복자의 언어와 풍속을 경멸하고 배척하며, 그에게 정복자의 언어와 신앙을 강요한다. 게다가 피정복자의 언어와 풍속과 제도를 유린하고 그 위에 정복자의 언어, 풍속, 습관, 제도를 수립한다. 그 일환으로 신정이니 구정이니, 양력설이니 음력설이니 하여 이중과세라는 명목으로 우리 고유 전통 명절인 설을 못 지내게 하고, 한국인의 단합과 단결력을 해체하려 한 침략자 일본인들의 底意와 숨은 뜻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다룬 일본식 말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정책의 상흔(傷痕)을 일깨워주는 역사적 증거어(證據語) 구실로 남을 뿐이다. 아직도 일본 군국주의 정신이 숨어 있는 말들과 일본인들의 '말 속입수'에 우리는 속지 말고 자각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언어의 주인 의식을 가져 국어를 살려야 한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늘 쓰고 있는 생활언어는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웬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법(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게 되며, 그것은 쓸데없는 말버릇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상의 혼란과 갖가지 오류를 낳는다. 언중들이 비판없이 맹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말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말을 오염시키고 나아가서는 우리말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우리의 교육, 특히 국어 교육에서 일상 언어생활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말들, 특히 잘못된 일본식 한자말을 임의대로 골라 다루면서 이런 잘못된 말들은 빨리 고쳐 바로잡아 사용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살핀 것

국어교육에서 고쳐 바로잡아야 할 말과 글

이다. '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언어 오용들을 주로 의미·화용면에서 살펴 보았다.

말과 글을 조금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서로가 말의 잘못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또 그렇게 지적해주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 한다. 다음 말로써 이 글을 끝맺는다.

"말이면 말이나 말이어야 말이지, 글이면 글이나 글이어야 글이지."

참고 문헌

- 국어학회(1984), 「국어학의 용어 문제」, 「국어학」 13집, 국어학회.
김계곤(1985), 「우리 말·글 살이의 바른 길」, 참한문화사.
김민수(1984), 「국어정책론」, 탐출판사.
——(1985), 「민족어의 장래」, 일조각.
김봉주(1988), 「개념학」, 한신문화사.
김진우(1988), 「언어와 심리」, 한신문화사.
남기십(1989), 「문법적으로 잘못된 말들」, 「국어생활」 1989 겨울(제19호), 국어연구소.
박갑수(1984), 「우리말의 오용과 순화」, 한국방송사업단.
——(1983), 「우리말의 허상과 실상」, 한국방송사업단.
실재기(1989), 「국어어휘론」, 집문당.
呂增東(1986), 「한국역사용어」, 시사문화사.
오동환(1985), 「우리말 산책」, 일지사.
우인섭(1978), 「현대한국어의 오용표현과 유형별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국
제대학 논문집」 제6집.
이경복(1976), 「국어계획론」, 글벗집.
이기동(1983), 「언어와 인지」, 한신문화사.

- 이기동·임상순·김종도(1988), 「언어와 심리」, 탐출판사.
- 이오덕(1989), 「우리글 바로쓰기①」, 한길사.
- (1992), 「우리글 바로쓰기②」, 한길사.
- 이은정(1989), 「오용 사례 검토」, 「국어생활」 1989 겨울(제19호), 국어연구소.
- 이희승·안병희(1989),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정재도(1981), 「국어의 갈 길」, 문경출판 주식회사.
- 조명한(1985), 「언어심리학」, 민음사.
- 최규일(1987), 「국어 교육에서 개정해야 할 용어들(1)」, 「논문집」 24집, 제주대학교.
- (1988), 「국어 교육에서 개정해야 할 용어들(2)」, 「백록어문」 5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 (1992),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중등교원 연수원 연수교재.
- 한국교열기자회 편저(1982), 「국어순화의 이론과 실제」, 일지사.
- 한국순화추진회 역음(1978), 「국어순화의 길」, 수도여자사범대학 출판부.
- D.Fay & Cutler(1977), Malapropisms and the structure of the Mental Lexicon, *Linguistic Inquiry*, Vol.8.No.3.
- G.S.Dell(1986),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Retrieval in Sentence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Vol.93.No.3.
- V.A.Fromkin(1973), *Speech Errors as Linguistic Evidence*, The Hague : Mouton.
- D.R.Olson(1977), *From Utterance to a Text: The Bias of Language in Speech and Written*.